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郁
印刷人 金周環
發行所 東大時報社
서울市中區會賢洞3街26 東國大學校內
電話(2) 1685 1686 6931

(週刊)
一部定價 五拾圓 年賦 四百貳拾圓

言 今週一

善은 知識이며
惡은 無知이다

—디오게네스—

三·一獎學金支給

本校 金周環(佛三)君 金永(農四)君 三·一獎學金 七十八日 支給받았다。

七萬圓씩을 大韓洋灰株式會社에서 成績이 뛰어난 學生百名에게 年間 三拾萬圓을 支給하고 있는 것으로 아서 九月分 登錄期間을 맞아 七萬圓씩을 支給해준 것이다

새로 이룩된 學問의 道場

新築中央圖書館開館

27日 피와땀 三年餘만에移轉

學問硏究의 요람이 될 本校 圖書館과 大學院 新築工事가 거의 完成단계에 이르러 오는 二十七日에는 中央圖書館이 新築建物로 移轉하게 된다。이 現代式 四層新築圖書館과 大學院은 四二九一年 五月一日 着工하여 三年五個月만에 完工段階에 이른 것인데 總工事費는 四億七千餘萬圓이다。

二十七日 뜻깊은 開一完工式도 간단히 擧行하게 될 本校 新築圖書館은 總 建坪이四、二五七·一七坪이며 總圖書閱覽席은 一、二八〇席에 達한다。그리고 書庫는 七十萬卷을 藏書할 수 있고 十四個의 大學院 硏究室과 九十七個의 敎授硏究室을 갖게 된다。

鍾工을 目前에 두고 移轉하게 된 中央圖書館에서는 二十七日부터 閱覽事務를 當分間 休務하게 되며 第一次로 事務陣과 藏書品을 移送할 計劃이라고 하는데 閱覽室 休館은 最少期間으로 短縮시킬 方針을 세우고 있다。

또한 新築閱覽室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하되 新閱覽室이 開館하게 되면 現 圖書館은 自動的으로 廢館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新築建物이 一時부터 第九次의 식에서는 「龍雲文學會」 定期總會가 開催되었다。이날 總會에서는 그 지난 事業報告와 會則 수정 통과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活動에 關한 討議가 있은 後 任員改選에 들어갔는데 會長에 田鍾顯君 副會長에 李東華君 總務에 李正奎君 敎務에 朴寅泰君 庶務에 金鎭浩君 等이 被選되었다。한편 오는 十月四日 同會의 고문이신 徐廷柱先生을 모시고 小劇場에서 會員의 作品合評會를 갖일 것이라 한다。

龍雲文學會

四日作品合評會

지난 二十日 第九次의 식에서는 「龍雲文學會」 定期總會가 開催되었다。이날 總會에서는 그 지난 事業報告와 會則 수정 통과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活動에 關한 討議가 있은 後 任員改選에 들어갔는데 會長에 田鍾顯君 副會長에 李東華君 總務에 李正奎君 敎務에 朴寅泰君 庶務에 金鎭浩君 等이 被選되었다。한편 오는 十月四日 同會의 고문이신 徐廷柱先生을 모시고 小劇場에서 會員의 作品合評會를 갖일 것이라 한다。

輝武部入部式

21日修鍊道場에서

제十三회 본교 신부부 입부식이 지난 二十一일 하오五시부터 선무부 수련도장에서 五十三명의 신입부원을 맞아드린 同입부식은 부원 八十여명과 선배와관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部長 李正奎군의 식사로 개식되었는데 불교의식인 삼귀의에 이어 교가, 부원선서가 있었고 다음 閱사법의 식사가 있었고 四弘誓願으로 끝났다。

이날의 입부식에서 신·구부원들은 심신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留學資格考試

10月21日부터

금년도 제四차 해외유학생 자격고시가 十월 二〇일과 二十一日에 실시된다。

자격고시응시자격은 인문과학계는 대학졸업자, 자연과학계는 자연계대학 二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라야 하며 남자인 경우는 현역에서 전역된자 현역에 복무중인자, 징집면제자, 병역면제자라야 하며 그리고 고시는 二十일, 인문과학계가 十월二十一일이며 응시원서는 학교당국에서 접수하고 경남북인대의 응시원서는 본국사와 해인사 등지에서 접수하게 되는데 미감은 十월 十일까지다。

(寫眞=新築된圖書館)

大學院入試에 32·3名合格

比較文學專攻할 硏究生도 十一名

新入生登錄磨勘은今月末限

二十一日 秋期 대학원에서 實施한 新入生選拔試驗 三十二명과 比較文學硏究生十一명이 發表되었다。이들은 지난 十八일 三十四講義室에서 英語, 第二外國語, 전공과목等 三科目에 걸친 필기시험과 면접을 치루어서 合格者 全員은 이달末까지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만일 등록을 필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합격자가 七명 만일 등록금은 본과 합격자 등록금과 같다。

◇合格者名單

▲佛敎學科=朴泰華 李鍾源

▲哲學科=姜英哲 姜聲淵 李守根

▲國文學科=趙永觀 李世基 金曉謙 崔範勳 玉貞 嚴燦 郭漢一 崔男洙 章洙 安相武

▲數學科=金鎭浩 ▲物理科=金仁湖 李榮勳

▲生物科=李敬宰 ▲法學科=秋永喆 崔東烈 金潤洙 李昌洙 白奉鉉

▲政治科=林象奎 ▲經濟科=朴寅泰 張忠翠 張明雲 洪敬愛 金驥煥

▲農科=鄭善默 李率澤

▲比較文學硏究生=金光敏 李鍾基 郭孝福 金容元 朱瑋煥 姜凡 張炳吉 金琮煥 尹昌模

▲會長 朴大赫

▲副會長 李敏求 尹泰鎬

史學會、古蹟踏査

29日부터 慶南北一帶서

史學科 졸업반에서는 오는 二十九일부터 十二일까지 二泊三日간에 걸쳐 경남북일대의 古蹟을 踏査하고 해인사 등지에서 一泊을 하고 二十九일 하오五시 경주에 도착하여 이번 추계고적답사는 二十二日 경주역에서 출발, 중앙선을 타고 경북사 경유해 서울을 향하여 二十二日 下午三時 서울역에 도착하여 二泊三日간의 답사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任아나 講演會

LKA 任宅根 아나운서는 오는 十二日 下午三時 內學生食堂에서 개최되는 大監況을 이루었다。

生物學會總會

22日任員改選

生物學會에서는 第十二回 定期總會를 二十일 오전十一時부터 綜合成績 優勝校에 賞狀, 個人賞(一等, 女敎官賞, 二等 商工部長官賞, 三等 財務部長官賞)을 수여한 後 審査規定을 決定하여 個人競技成績을 總集計하여 優勝校를 決定하는 綜合成績은 個人競技에 種目別로 集計하여 個人最高得點者를 決定한다。

그런데 各 參加校名單은 다음과 같다。

▲高等部(接受順)

△大田商高 △德壽商高 △群山商高 △光州商高 △慶南商高 △釜山女商 △大京商高 △東丘女商 △光州女商 △淸州商高 △仁川商高 △密陽實業高 △建國商高

▲中等部

△德壽中 △群山南中 △光新中 △慶南中 △東中 △大京中 △大田東中 △東丘中 △光州東中 △成南中 △裡里中 △樂浪中 △光州中 △大仁中 △大邱中 △鳳凰中 △仁川中 △永女中

다시 大學整備에 對하여

—學制改編부터 먼저 하기를—

드디어 今月末頃에는 私立大學의 整備와 節次와 定員再策定等이 發表되리라한다。

그리고 文敎部長官은 지난 十四日에 開催된 國立大學 總學長會議에서 現在의 大學定員 十萬四千餘名(在籍實數十四萬二千餘)을 五萬名으로 주린다고이의 全人文系와 實業系의 比率을 三對七로 할 것을 發表하였다。이러한 大學生 定員의 減縮을 斷行하게 된 理由로서, 大學卒業者의 失業을 없애고 年間 近三百億圓에 達하는 農村 都市 集中 通貨의 정도로 막기 위해서라고, 市內 某新聞紙上을 通하여 發表하였다。

特히 現在의 大學生數는 日本과 比較해보면 人口比 數値가 日本보다도 높다는 것이 指摘되었고, 아울러 經濟五個年 計劃을 가 實施할 政府의 施策으로 年間 九千名 정도의 大學卒業者를 完全 雇傭 시킬수 있으며, 이 中에서도 人文系는 三〇%로 하고 實業系는 七〇%로 하는 것이 옳當하다고 밝히었다。이에 대하여 우리는 몇가지 意見을 陳述코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日本과比較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된다。

優秀한 生産力과 好景氣 속에서 完全雇傭은 勿論 技術系는 人材不足으로 허덕이고있는 日本과, 他國의 援助로 거우 現狀維持를 하면서 많은 國民이 貧困에 떨고 있는 우리 나라가 어떻게 比較가 되겠는가。

실상 六·二五以後 우리의 學園이 急速度로 膨脹한 것은 援助의 德分이지 우리의 能力이 아니었다。따라서 우리의 學生數는 우리의 現狀과 그 與件 그리고 그 將來의 展望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요 남의 나라 흉내를 遂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後進國인 우리 나라가 解放後 先進國의 가져다 놓고 우리의 形式만 가진 民主主義의 形式만 가져다 놓고 우리의 實情에 맞는 制度와 施策과 目標를 硏究하고 오늘의 이 窮地를 가져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두째로는 無條件 先進國만 模倣해서는 안된다는 點에서 우리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學制를 改編해야만 할 것이요 나아가 大學을 비롯한 各級 學校의 學科의 改編을 마친 뒤에 年學科의 改編을 하고 學生數를 策定해야할 것으로 본다。오늘날 우리 敎育界의 많은 混亂과 腐敗는, 貧困한 나라가 施設 其他의 能力도 없이 富裕한 美國과 같은 나라의 敎育制度를 그대로 본따서 實施한 곳에 있다。또 이러한 敎育인프레는 한편으로 政府를 비롯한 많은 職場의 採用과 進級에서 個人의 貴重한 經驗과 能力은 돌보지 않고 卒業狀만을 形式的으로 重要視해온 데에도 原因한다。많은 사람들은 能力은 있으나 資格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大學에 갈려하고 안되면 卒業狀을 買造하거나 賣買하는일 조차 있었다。甚至於 六十餘 國立 國會議員마저 現在의 大學定員 十萬四千餘名(在籍實數十四萬二千餘)을 五萬名으로 주린다고이의 全人文系와 實業系의 比率을 三對七로 할 것을 發表하였다。이러한 大學生 定員의 減縮을 斷行하게 된 理由로서, 大學卒業者의 失業을 없애고 年間 近三百億圓에 達하는 農村 都市 集中 通貨의 정도로 막기 위해서라고, 市內 某新聞紙上을 通하여 發表하였다。

特히 現在의 大學生數는 日本과 比較해보면 人口比 數値가 日本보다도 높다는 것이 指摘되었고, 아울러 經濟五個年 計劃을 가 實施할 政府의 施策으로 年間 九千名 정도의 大學卒業者를 完全 雇傭 시킬수 있으며, 이 中에서도 人文系는 三〇%로 하고 實業系는 七〇%로 하는 것이 옳當하다고 밝히었다。이에 대하여 우리는 몇가지 意見을 陳述코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日本과比較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된다。

優秀한 生産力과 好景氣 속에서 完全雇傭은 勿論 技術系는 人材不足으로 허덕이고있는 日本과, 他國의 援助로 거우 現狀維持를 하면서 많은 國民이 貧困에 떨고 있는 우리 나라가 어떻게 比較가 되겠는가。

실상 六·二五以後 우리의 學園이 急速度로 膨脹한 것은 援助의 德分이지 우리의 能力이 아니었다。따라서 우리의 學生數는 우리의 現狀과 그 與件 그리고 그 將來의 展望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요 남의 나라 흉내를 遂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後進國인 우리 나라가 解放後 先進國의 가져다 놓고 우리의 形式만 가진 民主主義의 形式만 가져다 놓고 우리의 實情에 맞는 制度와 施策과 目標를 硏究하고 오늘의 이 窮地를 가져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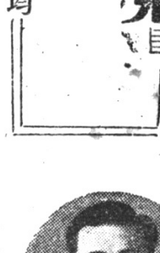
두째로는 無條件 先進國만 模倣해서는 안된다는 點에서 우리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學制를 改編해야만 할 것이요 나아가 大學을 비롯한 各級 學校의 學科의 改編을 마친 뒤에 年學科의 改編을 하고 學生數를 策定해야할 것으로 본다。오늘날 우리 敎育界의 많은 混亂과 腐敗는, 貧困한 나라가 施設 其他의 能力도 없이 富裕한 美國과 같은 나라의 敎育制度를 그대로 본따서 實施한 곳에 있다。또 이러한 敎育인프레는 한편으로 政府를 비롯한 많은 職場의 採用과 進級에서 個人의 貴重한 經驗과 能力은 돌보지 않고 卒業狀만을 形式的으로 重要視해온 데에도 原因한다。많은 사람들은 能力은 있으나 資格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大學에 갈려하고 안되면 卒業狀을 買造하거나 賣買하는일 조차 있었다。甚至於 六十餘

論壇

大學整備에對한私見

—大學生定員 減縮을 中心으로—

李 義 均



요지음 大學整備問題에 對하여 大學內에서는 勿論 一般의 輿論이 沸騰하고 있다. 五·一六革命前 부터 大學을 整備하여 다운 大學으로 옮겨 놓아야 하겠다는 말이 識者間에 異口同聲으로 들려왔다. 革命 後에는 文敎部 長官의 四大 文敎政策과 期待되는 바 實踐性에 있어 그를 가 자못 컸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學整備의 原則이 發表되고 臨時特例 敎育에 關한 公布되고 다시國 法이 立大學의 整備節次가 發表되자 學園은 勿論 一般의 輿論은 贊成보다는 反應이 높아가고 있다. 特히 私立大學整備節次의 發表를 앞두고 大學當局이 立大學整備節次의 要性이 없다는 말인가. 大學整備의 原則이나 大學整備의 節次에 不合理한 點이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對한 몇가지 問題를 들어 나의 私見을 陳述코저 한다.

從來에 大學整備를 主張한 것은 現在 文敎部에서 實施하려는 計劃과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從來의 一部大學運營을 意慾 大學基準令에 一般의 要求되는 바 이다. 그러나 大學生定員을 再配定하여 政治的으로 配定하는 傾向이 있었다. 따라서 大學生定員을 敎育施設과는 關係없이 學園謀利輩의 橫暴에 依하여 財團이나 學校 運營을 主目으로 一部 新聞紙上 에서 報道된 바 있는 것이다. 從來의 大學整備를

隨筆

아리따

李昌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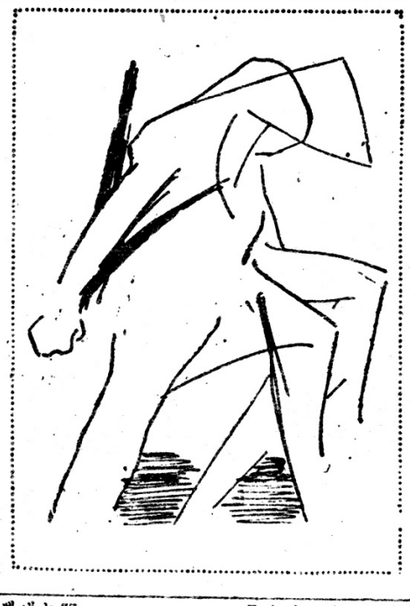
우리집에는 庭園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뜰 한 가지 花草를 심어 놓은 地帶가 있다. 제대로 庭園 規模를 갖춘 것은 아니라면 花草를 計劃的으로 심고, 손질도 제대로 할 것이지만, 本來 一種의 空地利用으로 꾸며진 貧弱한 庭園이다. 每年 計劃없이 아무리 等閑視되는 庭園이지만, 이런 꽃들이 自然生은 아니다. 본래 百合이니 카네아션이 뿌리고, 뿌리를 내어 불고, 집에 없는 것은 이웃집에서 移植까지 해오고 해서 이만큼 具色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손바닥만한 庭園에 아무렇게나 심은 것 같은 그 속에도 菊花 가꾸기란 누구나 심은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 나는 意圖와 趣味가 나타나있는 事實이다. 아무렇게나 심은 것 같으면서도 實은 아무렇게나 심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가꾸기란 功을 보고 마리아리 洋파초 꽃은 勿論, 카네아션이니 百合이니 그라지오라스 같은 西洋꽃들도 色은 갖춰진 것이다.

우리집에는 庭園의 中心部 第一 要地에 심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뜰 한 가지 花草를 심어 놓고, 겨시꽃, 분꽃 같은 것은 邊두리에 심어 놓고 있다. 내 趣味로는 三等꽃 一等꽃 至重하게 優待를 하는 꽃이 있는 것이지만, 本來 空地利用으로 꾸며진 貧弱한 庭園이다. 每年 計劃없이 아무리 等閑視되는 庭園이지만, 이런 꽃들이 自然生은 아니다. 본래 百合이니 카네아션

三秋의 스크린

◇…가을이 되면서 學生들은 讀書와 趣味를 潤澤하게 할 好時를 맞이한 셈이다。 여기 學生들의 趣味로써 映畫鑑賞을 돕기위하여 優秀映畫 二篇을 골라 紹介하기로한다 (編輯者)



「洋太平南」 大型映畫 70미리

롯드—AO方式 最初로 登場

「마이클·토스드」가 이번 사고로 죽기전에 이 새로운 方式의 大型映畫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토스드·AO」란 명칭도 창시자인 「마이클·토스드」와 연구와 제작을 맡았던 「아메리칸光學會社」의 첫 字를 딴것으로 이 「토스드·AO」는 「시네마스코—프」보다 더 넓은 화면과 「비스타뷔존」을 월등한 것이다。 또 이 「토스드·AO」 映畫가 다른 大型映畫와 크게 다른점은 촬영기구와 필름의 크기를 들수 있는데 촬영시나 영사시를 막론하고 七〇미리를 쓰고 있는데 이 「토스드·AO」는 촬영시의 「네가」(陰畫) 필름은 종래 영사용 포지 (陽畫)는 쓰지만 크기를 三五미리를 쓰는 비스타뷔존과는 全然다른 獨特한 것을 지니고 있으며 一二八度의 廣角觀野로부터 採光하는 「怪物의눈」이라는 특수 「바그아이」라는 렌즈를 쓰는데 이 렌즈에는 「怪物의눈」 以下 「三六四度」 「四八度」 「三七度」라는 각각다른 각도의 렌즈가 붙어 있어 촬영대상의 性質에 따라 알맞게 使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光學上의 革新이라고 불리우며 「시네마스코프」와 「토스드·AO」는 이러한 「一眼」과 「多眼」의 차이가있다。

「롯드·AO」의 필름은 보통 필림의 두장을 옆으로 붙인것 같은 文字그대로의 七〇미리로 속도도 一秒동안에 二十四후레임인데 三十후레임으로 더 速度가 빠르다。 또한 「롯드·AO」의 스크린은 보통보다 훨씬 큰 것인데 「시네마스코프」는 높이가 五十四尺이며 「七〇미리 롯드」는 높이가 三十三尺、넓이라는 길기가 七十五尺이라는 큰 것으로 우리나라 스크린에서는 初有한 것이다。 그리고 登場 필림 양쪽에 여섯줄로 내려가는 「싸운드트랙」에서 七方向으로 나오는 음향은 每스피커마다 高音二、低音二個의 크고 마스피커를 달고 있어 스크린 前面의 다섯개 數는 二十個가 되는 三十八個의 보조 스피커로 재생되는 指向多元磁氣完全立體音響은 다만 大型畫面과 관중을 웅장한 분위기 속으로 휩쓸고 들어가게 된다。

「南太平洋」에서 메리·게이너

人間의 意志追求

詩와 드라마의 調和

「老人과 바다」

映畫藝術의 新境地를 開拓한 「老人과 바다」는 영마전에 作故한 어니스트·헤밍웨이의 노벨文學賞受賞作品을 同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이 作品은 스토리와 構成이 映畫에서 노리는 것인데 「시네마스코프」와 「비스타뷔존」을 넘은 화면과 크기를 가진 大型映畫의 「토스드·AO」 방식을 채택하여 「老人과 바다」는 人間의 偉大한 意志力을 表現하고 있으며 自然(內部의 心理를 對決시켜 詩劇을 장쾌하게 具現한데 있다。 이 映畫의 優秀한 점은 技術的인 面에서보다 色彩美에 있다。 아울러 美術監督의 色配는 부라망크의 그것을 방불케 한다。

美術의 진북성있는 感動과 스펙사、트레시의 技巧는 이 映畫의 重厚한 演技는 映畫界의 話題中 하나로 되고 있다。

「老人과바다」에서 스펜사·트레시

現代와 核武器 (下)

金敏秀

世界人類가 위협받고 있는 이 核武器의 實驗과 그 使用에는 너무나 많은 비난과 反對에 봉착하였다。 知性이요 良心이라고 불리우는 버트란드·럿세卿이나 아인슈타인博士가 특기해야할 것은 바로 럿셀卿이다。 그러나 英國政府와 法院은 그에게 七日間의 留置刑을 내렸다。 英國政府는 國家施設에 反對한 것인데 이번은 지금 八九歲의 年老한 몸으로 이 問題에 대한 國家를 紊亂하게 할 憂慮가 있기 때문에 取한듯하다。 그와 같은 조처를 보고 「怪物의눈」 以下 「三六四度」 「四八度」 「三七度」라는 각각다른 각도의 렌즈가 붙어 있어 촬영대상의 性質에 따라 알맞게 使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光學上의 革新이라고 불리우며 「시네마스코프」와 「토스드·AO」는 이러한 「一眼」과 「多眼」의 차이가있다。

「롯드·AO」의 필림은 보통 필림의 두장을 옆으로 붙인것 같은 文字그대로의 七〇미리로 속도도 一秒동안에 二十四후레임인데 三十후레임으로 더 速度가 빠르다。 또한 「롯드·AO」의 스크린은 보통보다 훨씬 큰 것인데 「시네마스코프」는 높이가 五十四尺이며 「七〇미리 롯드」는 높이가 三十三尺、넓이라는 길기가 七十五尺이라는 큰 것으로 우리나라 스크린에서는 初有한 것이다。 그리고 登場 필림 양쪽에 여섯줄로 내려가는 「싸운드트랙」에서 七方向으로 나오는 음향은 每스피커마다 高音二、低音二個의 크고 마스피커를 달고 있어 스크린 前面의 다섯개 數는 二十個가 되는 三十八個의 보조 스피커로 재생되는 指向多元磁氣完全立體音響은 다만 大型畫面과 관중을 웅장한 분위기 속으로 휩쓸고 들어가게 된다。

世界人類가 위협받고 있는 이 核武器의 實驗과 그 使用에는 너무나 많은 비난과 反對에 봉착하였다。 知性이요 良心이라고 불리우는 버트란드·럿세卿이나 아인슈타인博士가 특기해야할 것은 바로 럿셀卿이다。 그러나 英國政府와 法院은 그에게 七日間의 留置刑을 내렸다。 英國政府는 國家施設에 反對한 것인데 이번은 지금 八九歲의 年老한 몸으로 이 問題에 대한 國家를 紊亂하게 할 憂慮가 있기 때문에 取한듯하다。 그와 같은 조처를 보고 「怪物의눈」 以下 「三六四度」 「四八度」 「三七度」라는 각각다른 각도의 렌즈가 붙어 있어 촬영대상의 性質에 따라 알맞게 使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光學上의 革新이라고 불리우며 「시네마스코프」와 「토스드·AO」는 이러한 「一眼」과 「多眼」의 차이가있다。

「롯드·AO」의 필림은 보통 필림의 두장을 옆으로 붙인것 같은 文字그대로의 七〇미리로 속도도 一秒동안에 二十四후레임인데 三十후레임으로 더 速度가 빠르다。 또한 「롯드·AO」의 스크린은 보통보다 훨씬 큰 것인데 「시네마스코프」는 높이가 五十四尺이며 「七〇미리 롯드」는 높이가 三十三尺、넓이라는 길기가 七十五尺이라는 큰 것으로 우리나라 스크린에서는 初有한 것이다。 그리고 登場 필림 양쪽에 여섯줄로 내려가는 「싸운드트랙」에서 七方向으로 나오는 음향은 每스피커마다 高音二、低音二個의 크고 마스피커를 달고 있어 스크린 前面의 다섯개 數는 二十個가 되는 三十八個의 보조 스피커로 재생되는 指向多元磁氣完全立體音響은 다만 大型畫面과 관중을 웅장한 분위기 속으로 휩쓸고 들어가게 된다。

紀行文과 그 責任

—尹暎俊君의 濟州島紀行抄를 駁함—

高時弘

筆者는 尹君이 記述한 順序대로 不當한데 대한 간단히 反駁하고 事實을 밝혀보고저 한다。

제주도의 육지부(陸地部)에 비해 심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관광객에 있어 상대방에 이나 계몽원등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몰상식하게 제주도 사람들은 「뱀도 동혼대」라고 욕하지 않는다。 「뱀도 동혼대」가 상대방에 대하여 「불쌍」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不幸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결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뱀도 동혼대」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